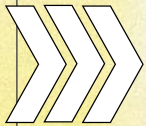


모두를 위한 자원순환 웹진

환 - 하 다



환경을 환하게, 우리의 작은 순환



펴내며

에디터 서연

웹진 『환(還)-하다』.

업사이클링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는 '순환대로' 팀의 마지막 활동이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가장 넓은 대로를 만들겠다던 우리의 첫 포부답게,
매번 새로운 방식을 통해 자원순환의 문턱을 계속해서 낮추어 왔다.

이번 웹진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누구나 자원순환에 다양한 방식으로 동참할 수 있음을 전한다.

『환(還)-하다』라는 이름에는 '돌아오다'와 '환해지다'라는 두 가지 뜻을 함께 담았다.
쓰임을 다한 것들이 다시 돌아와 환한 쓰임을 얻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자원순환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조금씩 환해진다.

목차

Chapter 1. [시작 : 하다]

- 5 멍ଚ하는 순간 | 우리는 왜 항상 헛갈릴까
- 8 프로젝트 소개 | 순환대로가이 이야기를 시작한 계기

Chapter 2. [행 : 하다]

- 15 핵심 용어 정리 | 자원순환이란 무엇인가
- 19 행동하는 사람들 | 현장에서 듣는 자원순환 이야기

Chapter 3. [함께 : 하다]

- 35 경험은 변화가 된다 | 팝업에서 만난 목소리들
- 39 주위를 둘러보면 | 제로웨이스트·새활용 공간 지도
- 41 더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해 | 참고 자료 & 추천 콘텐츠

Chapter 1

시작 : 하강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인데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
자원순환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도
어쩌면 이런 작은 혼란에서 시작되는 것일지 모른다.
이 장에서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멈칫하는 순간'에서 출발해
순환대ろ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멈칫하는 순간 | 우리는 왜 항상 헛갈릴까

에디터 수연

생활 속 폐기물의 어려움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물건을 사용하고 버린다.
배달 음식 용기, 카페에서 가지고 나온 플라스틱 컵,
택배 포장지, 고장난 생활용품까지.
어떤 물건은 단 몇 분만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물건은 오랜 시간 사용되다가 결국 버려진다.
얼마나 사용했든 간에 상관없이 버리는 순간은 찰나인 것이다.

하지만 그 앞에서 잠깐 멈칫하는 순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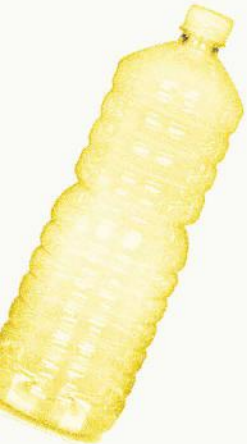
"이건 일반쓰레기일까? 아니면 재활용일까?"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다른 재질이 섞여 있는 경우라든가,
재활용 표시가 있어도 실제로는 분리배출하기 어려운 물건도 많다.

분리배출을 하려고 쓰레기를 들고 서 있다가
어느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지 몰라 고민했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지 않은가.
조금 더 찾아보면 잘 버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일단 일반쓰레기로 버리자'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이미 알고,
재활용이나 분리배출의 중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관심이 곧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쓰레기 앞에서 고민한다.



알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

분리배출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재질이 여러 개 섞여있는 물건은 직접 분리하기 어렵다. 특히 일상 속에는 다양한 복합 폐기물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산은 천, 금속, 플라스틱 등 여러 재질이 함께 사용된 물건이다. 장난감이나 생활용품 역시 다양한 재질이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물건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배출 과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

분리배출 기준이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아는 것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행동하는 것

"고무장갑, 지역에 따라 배출 기준이 달랐다"

고무장갑은 대부분 지역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합성고무 제품으로 분류되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도록 안내된다. 그러나 과거 서울 강남구에서는 고무장갑을 PP봉투(소각불가 폐기물 봉투)에 따로 배출하도록 규정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다른 자치구와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경우였다. 이 기준을 알지 못한 채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강남구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뉴스핌권, 「구마다 다른 분리배출 '혼란'」, 2025.09.15

문제는 관심이 아니라 실천의 방식이다

업
사
이
클
링
,
일
상
에
서
참
여
가
어
려
운
이
유

이러한 문제 속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업사이클링'이다.

업사이클링은 버려질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다른 제품이나 물건으로 다시 사용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기존 물건의 가치를 확장하고 재해석하는 자원순환 방법인 것이다.

하지만 업사이클링 역시 일상에서 쉽게 시작하기는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업사이클링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나, 아예 어떻게 시작할지 감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구매하려고 해도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접근성이 낮게 느껴지기도 한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천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전히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간극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에서 순환대로의 업사이클링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UP-brella

: 다시 쓴 우산



업사이클링의 문턱을 낮추다

에디터 연우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우산을 버리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4,000만 개의 우산이 폐기된다. 비가 올 때마다 사용하는 물건인 만큼 매년 적지 않은 양의 우산이 버려진다. 우산은 금속, 플라스틱, 섬유가 결합된 복합 구조라 분리배출이 까다로워 재활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결국 많은 우산이 소각되며 온실가스와 유해물질 배출로 이어진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자원 순환의 관점에서는 쉽게 지나치기 어려운 문제인 셈이다.

우산 천은 방수성과 내구성을 지닌 유용한 소재다. 우리 - 순환대로 팀은 이 소재의 가능성에 주목해, 버려진 우산을 새로운 물건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Up-brella : 다시 쓴 우산'을 시작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업사이클링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실제 참여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업사이클링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폐우산을 직접 수거한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체험을 운영해 시민들이 자원순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자원순환은 결국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버려진 우산에게 새로운 삶을

우산이 있어야 시작을 하지

버려진 우산을 모으는 일부터 시작했다. 먼저, 성북구 내 4개 아파트 단지에 총 10개의 페우산 수거함을 설치하기로 협조를 구했다.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2개, 길음현대 아파트 3개, 장위우방아파트 1개, 해링턴플레이스안암 4개) 수거함 옆에는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포스터와 우산 분리배출 방법 안내 포스터 또한 함께 제작해 부착했다. 특히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디자인했다.

2주간 설치한 우산 수거함을 다시 찾아가 보니, 처음에는 낯설어하시던 관리사무소 직원분께서 우리를 환하게 맞아 주셨다. 조금 더 설치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던 주민 분, 이침에 집에 남아돌던 페우산을 다 가져올 수 있었다는 주민 분 등 자원순환의 첫 걸음에 동참해주신 시민들의 따뜻한 후기가 이어졌다.



우산천만 남고 다나가

이를 통해 모인 페우산은 본격적인 분리작업을 거친다. 먼저 금속 뼈대와 우산천을 하나하나 끊어 분리한 뒤, 천은 따로 세척과 건조 과정을 진행한다. 이후 업사이클링 키트에 포함시킬 만큼의 규격으로 꼼꼼하게 잘라 준다. 전체 팀원이 모여 약 10시간 동안 모든 작업을 진행했다. (...)

이번 수거를 통해 총 64개의 페우산이 모였고, 이 가운데 상태가 양호해 업사이클링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는 우산은 46개였다. 이렇게 업사이클링 키트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우산천 약 39㎡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업사이클링 키트로 ...



먼저 스크런치키트는 우산천, 실, 바늘, 수예용 고무줄로 구성되어 있다. 폐우산의 방수 소재를 활용해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수 스크런치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획했다. 비교적 간단한 바느질로 부담없이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북키트는 우산천, 재단보드, 노트속지, 보드 연결지, 목공풀, 코너장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산천을 노트 표지로 활용해 자신만의 업사이클링 노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했다.

키트 구성만 한 세월

업사이클링을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DIY 키트를 구성했다. 업사이클링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위해, 별도의 도구 없이도 키트만으로도 업사이클링을 시도할 수 있는 구성을 목표로 했다.

키트에는 세척과 재단을 거쳐 준비된 우산천을 중심으로, 제작에 필요한 재료와 설명서, 설명 영상을 함께 담았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일상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업사이클링 스크런치키트와 업사이클링 북키트를 제작했다.



118개나 완성

모든 구성품이 준비되면 키트를 하나씩 포장하고 최종 검수 과정을 진행한다. 업사이클링 체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키트에 필요한 재료가 빠짐없이 담겨있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이렇게 업사이클링 키트 총 118개를 완성했다!

롯데 벨유forESG 7팀
자원순환 체험팝업



한 번 더 펼쳐지는 것들

프로그램

- 나만의 페우산 업사이클링 피우치 / 북커버 꾸미기
- 페우산 스크린치 / 노트 커버 DIY 키트 제공
- 제로웨이스트 브랜드 《지구스타리, 리뉴어스, 지구나무》 협찬품 특별 체험 전시 및 제공
- 제로웨이스트 이벤트 및 상품 증정

사전신청

누구나 무료 입장!
2/1~2/20 동안
사전 신청자 대상
아메리카노 제공
(선착으로 마감됩니다)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가길 10, 카페 플로피 (뚝섬역 도보 2분)

2026.02.27 FRI

그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업사이클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나설 차례다.
사진은 직접 디자인한 팝업 포스터.

그림이 더 많은 사람들이 업사이클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2026년 2월 27일, 성수의 한 카페에서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체험 팝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 번 더 펼쳐지는 것들>이라는 이름 아래, 교육과 체험이 이어지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몇 달 간 기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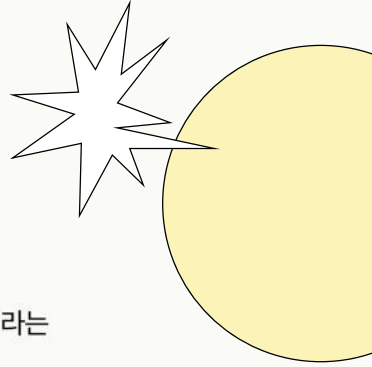
특히 더 많은 시민들이 업사이클링을 어렵지 않고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가장 대중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형태인 '팝업' 방식을 선택하게 됐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공간에서 누구나 가볍게 참여하며 자원순환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프로그램으로는 시민들이 폐우산 소재를 직접 만지고 활용해 볼 수 있는 업사이클링 체험 콘텐츠를 메인으로 기획했다. '나만의 스트링 파우치 / 북커버 꾸미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패브릭 소잉 스튜디오 위아프런과 협업하여 폐우산 원단을 활용한 제품 제작 협업을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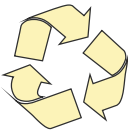
또한 폐우산 말고도 더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로웨이스트 제품들을 체험해보는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친환경 브랜드들에 협업을 요청드렸다. 취지에 공감해주신 브랜드들 세 곳의 제품들을, 게임을 통해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도 운영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는 업사이클링을 조금 더 가까운 경험으로 펼쳐 보고자 했다. 폐우산을 직접 수거하고, 시민들이 업사이클링 체험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자원순환의 의미를 일상 속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순간순간들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일한 방식만으로는 자원순환을 충분히 이끌어내기 어렵겠다는 한계 역시 체감하게 됐다. 업사이클링 또한 의미있는 실천이지만, 자원순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업사이클링과 병행될 수 있는 더 넓은 관점과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이 웹진의 지면을 빌려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보고자 한다. 업사이클링 그리고 그 다음. 자원순환의 빈칸에는 또 무엇이 올 수 있을까.



Chapter 2

행 : 하자

자원순환이라는 말은 이제 낯설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는 많지 않다.
버려진 자원이 다시 사용되고 새로운 가치를 얻는 긴 시간을 거치는 만큼
다양한 방식과 시도가 존재한다.
이 장에서는 자원순환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과 용어를 살펴보고,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로 담았다.

그렇다면 애초에 자원순환 이 뭐길래?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한다.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
고,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
여 처리하는 것".

하지만 이렇게 틀에 맞춘 정의
만으로는 자원순환이 우리 생
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
게 실천해야 하는지 쉽게 외당
지 않는다.

사실 자원순환은 단순히 쓰레기
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과 자원을
어떻게 더 오래, 더 가치 있게 사
용할 수 있는지까지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 실천 방식을 살펴보자.



1/4

Reduce [줄이다]

비우고 줄이는 현명한 선택

자원순환의 첫 번째 단계는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일상에서 일회용 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리필 스테이션에서 생활용품을 필요한 만큼 소분해 구매하는 행동이 그 예다. 또한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합성수지 수세미같은 제품을 대신할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더 나아가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 '녹색제품' 인증 표시를 확인하거나, 가치가 높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살피는 습관 역시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 일상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용기내 캠페인'의 한 장면. civicnews(2023).



▲ 녹색제품 인증표시



▲ 순환자원사용제품 인증표시

2/4

Reuse [다시 쓰다]

쓰임을 잇고 가치를 나누는 일

물건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는 것은 자원 낭비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이 생산되는 오늘날의 소비 환경 속에서 어쩌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방법인 것 같기도.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러한 방식의 자원순환을 자연스럽게 경험해 왔다. 성장하면서 몸에 맞지 않게 된 옷을 지인에게 나누어 준다거나, 고장난 물건은 어떻게 해서든 수리해서 쓴다거나. 물건 자체의 수명은 그렇게 조금씩 연장된다. 지금도 아름다운가게, 굿월스토어, 옷캔 등에 기부할 수 있고, 매년 부러진 우산을 수리해주는 '찾아가는 수리센터'처럼 한 물건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단체들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나에게 쓰임을 다한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 또 다시 쓰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것. 간단해 보이지만 약간의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행동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물건이 바로 버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쓰이도록 만드는 자원순환의 중요한 단계가 된다.



서초구, 찾아가는 우산 수리 센터 ▶

3/4

Recycle [재활용하다]

시작을 만드는 끝

점심시간에 테이크아웃으로 커피 한 잔을 사 들고 나오는 모습은 너무 흔한 일상이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음료를 마시기 위해 사용된 뒤 버려지는 일회용 컵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사실 문제는 이렇게 버려진 일회용 컵 가운데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이 5%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재활용이 뭐길래? 여기에서 말하는 recycle(재활용)은 같은 컵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다회용 컵을 세척해 여러 번 사용하는 방식이 reuse(재사용)라면, 재활용은 사용이 끝난 플라스틱 컵을 수거해 작게 분쇄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컵 자체를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컵의 플라스틱 자원을 새로운 원료로 다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배출이 중요하다. 음료를 다 마신 뒤 컵 안의 내용물을 비우고, 빨대나 컵 뚜껑 같은 부속물을 분리해 배출하면 재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매일같이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일회용 컵도 이러한 분리배출 과정을 거치면 새로운 제품의 원료가 될 것이다. 한 번 사용된 물건이 또 다른 자원이 되어 다시 활용되는 것, 이것이 바로 recycle(재활용)이다.

4/4

Upcycle [재활용하다]

아이디어에 가치를 더하다

마지막 자원순환의 방식은 업사이클링. 재활용이라는 말로도 부른다.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물건에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방법이다. 병뚜껑으로 키링을 만들거나, 폐의류를 사용해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식이다.

물건에 처음 부여된 목적에 갇히지 않고, 나만의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방식을 열어간다는 점에서 가장 능동적으로 자원 순환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업사이클링을 통해 순환의 고리를 새롭게 만들어 보자.



오버랩, 패러글라이더 천 업사이클링 월렛 ▶

행동하는

사람들

|

그들의

목소리를

인터뷰하다

행동하는 사람들 | 현장에서 듣는 자원순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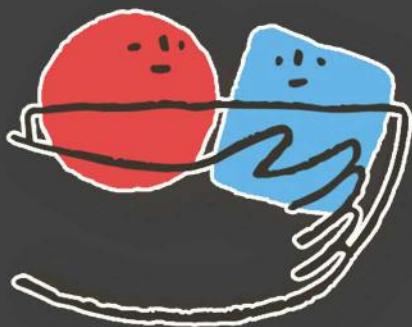
에디터 현규

알맹이상점 제로웨이스트샵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

알맹이상점은 대한민국 제로웨이스트 문화의 선구자로 불리는 '리필 스테이션'이다.

화장품부터 세제, 향신료까지 포장재 없이 내용물(알맹이)만 판매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새로운 소비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판매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와 함께 자원 순환을 고민하는 커뮤니티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알맹이상점



간단한 소개와 함께 현재 어떤 방식으로

자원순환 활동을 운영·실천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껌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 제로웨이스트 샵 알맹상점을 운영하는 고국숙입니다. 알맹상점은 포장 용기 없이 화장품, 세제, 먹거리 등을 재사용 용기에 리필하는 가게입니다. 이렇게 새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재사용 리필과 더불어 자원순환이 되지 않는 10여 종류의 쓰레기를 모아 재활용시키는 활동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며 느끼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어떤 물건이든 포장된 상태로 유통되는 것이 기본이므로 포장되지 않는 제품이나 대용량의 리필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화장품과 세제를 다양하게 입고하고 싶어도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혹은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제품들은 가격이 높아 손님들이 선뜻 구입하기 부담스러워 하기도 해요. 적당한 가격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무포장, 대용량 벌크 제품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로웨이스트 실천과 재사용 용기에 구매하시는 '알맹이만 찾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기도 해야 하고요.

시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이미 많은 친환경 자원순환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환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좋아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골라서 실천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뭐라도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뭘 꼭 안 하더라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에 들 수 있는 과일이나 김밥 한 줄을 구입할 때 비닐봉지를 거절한다든가, 공짜로 나눠주는 사은품이나 광고지를 거절하는 것 말입니다. 또한, 일회용 컵에 값을 매기는 등 시민들이 반대하는 자원순환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규제가 필요하다는 댓글이나 의견을 피력해주세요. 그래야 세상이 바뀔겁니다.

일을 하시면서 특히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나라는 제로웨이스트 샵들이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데, 한국의 제로웨이스트 샵들은 병뚜껑, 종이팩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자원들을 모으는 쓰레기 사랑방 거점이 됩니다. 저희 알맹상점이 시작했는데, 그게 국내 제로웨이스트 샵의 기준처럼 되었어요. 알맹상점이 국내 제로웨이스트 샵의 긍정적인 기준을 만든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국내 최초로 리필 스테이션을 도입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또한 이 방식이 알맹상점이 추구하는 자원순환 가치와 어떻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알맹상점을 3명이 함께 공동 창업했는데요. 모두 망원시장에서 포장지 없이 자기 용기에 장을 보는 #용기내 캠페인을 하다가 화장품과 세제도 리필하고 싶어서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화장품과 세제를 안 살 수는 없는데 용기를 가져가면 알맹이만 담아서 살 수 있는 가게가 없더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가게가 필요해서 직접 동네에 차리게 되었습니다. 먹고 피부에 바르고 세탁하고 청소하는,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쓰레기 없이, 알맹이만 담고 싶었어요. 동네에서 구체적이고 쉬운 대안을 직접 만들자 했죠. 그랬는데 알맹상점이 작년에 리필과 쓰레기 재활용으로 줄인 탄소배출량이 30년 생 소나무가 심어진 숲 2.5개 정도만큼 됩니다.

제로웨이스트 샵 운영 과정에서 시민들의 인식이나 행동이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신 순간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알맹상점 단골인 '알맹러들'은 애착용기를 가져와 몇 번이고 리필해가시는데요. 알맹상점이 생긴 후 새 용기에 담긴 세제나 화장품을 산 적 없다고 간증을 하신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반면 처음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리필하시면서 생각보다 쉽고 물건의 비싸지 않고 재밌다는 시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히 MZ세대의 젊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데요. 이런 흐름이 희망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행동하는 사람들 | 현장에서 듣는 자원순환 이야기

에디터 현규

119 REO 업사이클링 브랜드

"소방관의 생명을 담은 방화복, 일상 속 가치로 다시 태어나다"
119 REO는 Rescue Each Other'라는 의미를 담아,
생명을 구한 뒤 버려지는 폐방화복과 소방 호스를
가방이나 액세서리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브랜드입니다.
제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암 투병 소방관 등 권익 보호를 위해
기부하며, 우리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119REO



간단한 소개와 함께 현재 어떤 방식으로

자원순환 활동을 운영 · 실천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방관의 용기를 구한 방화복의 두 번째 용기를 만드는 119REO입니다. 소방관을 지켜낸 방화복을 활용해 가방, 키링, 지갑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화복에서 아라미드 단섬유 추출 기술 개발을 통해 소방관 전용 방염 양말, 보조 배터리 폭발 화염 격리백(FCB)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며 느끼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방화복에서 아라미드 단섬유 추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은 정말 어려웠어요. 기술 개발에 3년, 이걸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도 1년, PCR-A 제품을 만드는데 4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시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순환 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오래도록 사용하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제품을 소비하고 이 때에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구요. 그래서 119REO의 가방은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실제 119REO가 처음 시작한 16년도 당시 구매한 제품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용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을 하시면서 특히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119REO는 서로가 서로를 구하다 Rescue Each Other는 의미입니다. 암 투병 소방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익의 일부를 소방관 분들에게 기부금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22년도에 암 투병 소방관이 공무상 상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방관 공상 추정법이 개정되었어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바꾼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폐소방복은 쉽게 구할 수 없는 소재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로로 수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소방관의 용기를 지킨 소중한 방화복은 소방본부, 소방서와 MOU를 통해서 수급하고 있습니다.

초기 소비자들은 '폐소방복으로 만든 제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극복해야 했던 인식이나 편견도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누군가를 구하고 소방관을 지켜준 용기의 흔적이 나를 지켜줄 것 같다는 반응이 많아요. 그래서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취업 선물로도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행동하는 사람들 | 현장에서 듣는 자원순환 이야기

에디터 현규

그린업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센터

"일회용 컵 없는 일상을 설계하는 스마트 순환 시스템"
그린업은 다회용기 순환 서비스 플랫폼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고 리유저블 컵의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전 과정을 IT 기술로 관리합니다.
카페나 기업, 축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편리한 반납 인프라를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시스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함께 현재 어떤 방식으로

자원순환 활동을 운영 · 실천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그린업은 부산에서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자 탄생했습니다. 팬데믹 시기, “친환경은 불편하다.”라는 편견을 넘어 지속 가능한 편리함’을 실현하기 위해 전용 앱 기반의 1:1 보증금 순환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23년 그린피스의 글로벌 재사용 연구에 한국 대표 기업으로 참여하여 다회용기의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으며, 현재는 관공서와 대학, 대기업 등 전국 주요 거점에서 IT 기술이 접목된 자원순환 솔루션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린업은 실질적인 데이터로 증명되는 진정성 있는 ESG를 실천하고자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며느끼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일회용 컵 소비가 가장 많은 길거리 프랜차이즈의 테이크아웃 컵을 다회용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열린 공간이다 보니, 다회용 컵의 재질이나 위생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앱 사용법을 안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력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다회용 컵을 선택해야만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에게 필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리워드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대학은 참여율이 높지만, 일반 시민 대상으로는 카페 직원들의 협조 여부에 따라 성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카페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일상에서 시민분들이 가장 쉽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습관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실천은 개인 컵을 휴대하는 것입니다. 공용 다회용 컵도 훌륭한 대안이지만,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 컵 하나를 최대한 오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회용기 사업의 시작으로 ‘컵’을 선택한 이유도, 개인이 휴대하기 편해 재사용 습관을 기르는 가장 좋은 마중물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컵 뿐만 아니라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택배 박스나 비닐도 충분히 재사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편리함 대신 ‘물건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습관을 조금만 바꾼다면, 우리 주변의 자원이 가진 소중함을 새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을 하시면서 특히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지난 5년간 창원시와 함께 다회용컵 문화를 일구는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022년, 아날로그 방식의 ‘돌돌컵’을 추적관리가 가능한 IoT 시스템으로 전환하며 상업 중심지인 상남동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생소했던 다회용컵을 알리기 위해 ‘시민 서포터즈를 기획했는데,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200여 명의 지원자가 모여 온오프라인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셨고 그 기록은 아직도 온라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현재는 창원대학교와 시청 인근에 안정적인 ‘창원돌돌컵’ 카페 존이 형성되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과 확신을 느낍니다.

처음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 최근 시민들이 다회용기를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실감하시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다회용기 사용이 ‘특별한 결심’이 아닌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느끼신 순간이 있었나요?

사업 초기에 비해 시간이 흐를수록 사용률과 반납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며 일상에 스며드는 것을 실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원시는 가장 오래 시스템이 정착된 곳으로, 현재 시청 주변과 창원대학교 인근 카페 약 40여 곳 이상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지역 어디서나 누구나 익숙하게 ‘창원돌돌컵’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점심 식사를 마친 시민들이 손에 다회용컵을 들고 자연스럽게 길을 걷는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다회용기 사용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원순환 현장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게 만드는

운영자님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또 어떤 변화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길 바라시는데도 궁금합니다.

다회용 컵을 한 번 사용하면 일회용 컵 하나가 줄어든다는 확신이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비록 시작은 작아 보일지라도 ‘티끌 모아 태산’처럼 쌓여가는 변화를 체감할 때마다 더 큰 힘을 얻습니다. 과거에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금연구역이 된 것처럼,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상식에 어긋나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인류의 편의를 위해 만든 일회용품들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다른 생명체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멈추길 바랍니다. 인간과 자연이 온전하게 공존하는 세상이 되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들 | 현장에서 듣는 자원순환 이야기

에디터 현규

의류 순환 플랫폼 다시입다연구소

"가장 친환경적인 옷은 이미 당신의 옷장에 있습니다"
다시입다연구소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 쉽게 버려지는 의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류 순환' 문화를 전파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옷을 새로 사기보다 수선하고, 바꿔 입고(21% 파티), 오래 입는 문화를 제언하며 패션 산업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간단한 소개와 함께 현재 어떤 방식으로

자원순환 활동을 운영·실천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시입다연구소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목표로 '지속 가능한 의생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자원순환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의 의생활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리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식의 의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좋은지 대안을 제안하며, 시민들이 의복 소비 습관을 스스로 돌아보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 중심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며 느끼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활동 초기인 5~6년 전에는 의생활과 환경의 상관관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나, 현재는 대중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어 인식 개선 측면에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한국 사회 특유의 남을 의식하는 문화와 새 옷을 입어야 깔끔해 보인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의생활이 더 멋지고 즐거운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시각을 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시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가장 좋은 실천은 새로운 소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옷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할 때는 중고나 빈티지 제품을 이용해 이미 세상에 나온 옷의 수명을 연장해야 합니다. 또한, 옷을 수선하거나 자수를 놓아 나만의 옷으로 재탄생시키고, 해로운 미세 섬유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세탁 횟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실천법입니다. 일상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무소비'가 환경을 위한 가장 강력한 행동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일을 하시면서 특히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시민들이 스스로 "옷을 안 산 지 2~3년이 되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이른바 '간중'의 순간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옷을 수선해서 입을 과정을 즐기고, 이를 SNS에 공유하며 오래된 옷의 가치를 뽐내는 모습을 볼 때 큰 힘을 얻습니다. 환경을 위한 불편함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실천하고 이를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시민들의 변화가 활동의 가장 큰 동력입니다.

쉽게 사고 버리는 패스트 패션 시대에, 옷을 고쳐 입고 다시 나누는 활동은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옷을 단순히 사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나와 인연을 맺은 소중한 자원으로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돈만 있으면 쉽게 사고 버리는 물질주의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실천적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결국 물건과 나, 타인과 나, 더 나아가 환경과 나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서로 아끼고 나누는 관계 중심의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옷을 고쳐 입는 것이 아끼는 행동이었다면, 요즘은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 있는 행동으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느끼시는 시민들의 가장 큰 인식 변화는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옷을 수선하거나 중고를 입을 것을 경제적 어려움 때문으로 치부했으나, 이제는 이를 험하고 가치 있는 행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옷을 교환할 때 전 주인의 사연(스토리를) 읽으며 정서적 유대를 느끼고, 수선을 통해 자신의 정성이 들어간 옷에 더 큰 애착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패스트패션이 범람하는 시대에 나만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적 가치를 지키는 삶이 더 세련된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들 | 현장에서 듣는 자원순환 이야기

에디터 현규

열린옷장 정장공유 플랫폼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는 정장의 선순환"
기증받은 정장을 취업 준비생 등 정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대여해 주는 '공유 옷장'입니다.
옷장 속에 잠자던 정장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대여자와 기증자 사이의 따뜻한 응원을 연결합니다.
의류의 수명을 연장하는 자원 순환의 가치에
'나눔'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함께 현재 어떤 방식으로

자원순환 활동을 운영 · 실천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정장을 기증받아 공유하는 비영리조직 <열린옷장>의 대표 김소령입니다. 열린옷장은 옷장 속에 잠들어 있는 정장을 기증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옷을 기증받는 것을 넘어, 옷이 기증되고 대여되는 과정에 담긴 기증자의 응원 메시지와 대여자의 감사 인사를 연결함으로써 '의류의 수명 연장'과 더욱 특별한 '가치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을 통해 '사람과 지구 모두에게 응원이 되는 정장공유 플랫폼'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자원순환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며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의 활동을 알리는 일입니다. 기증과 공유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은 누구나 열린옷장의 활동에 크게 공감하고 서포터즈가 됩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정장을 기증공유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이번 웹진을 통해 좀더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는 전문적인 세탁, 수선, 보관 시스템을 갖추는 데 상당한 공간과 비용, 인력이 소요되는 활동이다 보니 지속가능한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공유옷장의 가치에 공감하고 참여해주시면 큰 힘이 될 듯 합니다

시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자원순환은 거창한 결심보다 '내 옷장을 한번 더 들여다보기'에서 시작됩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있다면, 쉽게 의류수거함에 넣기 보다는 제대로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한 곳을 찾아 기증해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옷을 새로 사기 전 "정말 필요한가?"를 한 번 더 고민하고, 소유할 필요가 없는 정장과 같은 옷이라면 공유옷장 이용을 고려해본다면 당신으로부터 지구를 위한 자지만 소중한 실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시면서 특히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기증자와 대여자가 서로 주고받는 '마음의 연결'을 확인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한 기증자분께서 첫 취입 때 입었던 소중한 정장을 기증하며 "이 옷을 입고 저처럼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는 편지를 남기시면, 그 옷을 빌려 입고 취입에 성공한 청년분이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해주십니다. 그것도 꼭꼭 눌러쓴 손편지요! 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낯선 이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그 따뜻한 에너지가 자원순환의 동력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매 순간이 저에게는 잊지 못할 감동입니다.

쉽게 사고 버리는 패스트 패션' 시대에, 옷을 고쳐 입고 다시

나누는 활동은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옷을 고쳐 입고 나누는 행위는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패스트 패션이 주는 즉각적인 만족 뒤에는 막대한 환경 파괴와 노동 착취라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반면, 옷을 수선하고 공유하는 활동은 물건에 담긴 시간과 노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쳐줍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무분별한 소비 대신 '지속 가능한 공존을 고민하는 태도가 확산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더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전에는 옷을 고쳐 입는 것이 아끼는 행동이었다면, 요즘은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 있는 행동으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느끼시는 시민들의 가장 큰 인식 변화는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중고의류나 수선을 선택하는 행위가 경제적인 이유였다면, 이제는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나는 환경을 위해 공유옷장을 이용한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기증을 하실 때도 단순히 안 입는 옷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이 누군가에게 가치있게 쓰이길 바랍니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십니다. 이러한 '가치 소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기증공유를 통한 자원순환을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당연한 선택이자 문화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들 | 현장에서 듣는 자원순환 이야기

에디터 현규

다회용기 순환 서비스 제로메이커스

"축제의 즐거움은 남기고, 일회용품 쓰레기는 지우다"
부산의 청년 문화기획자들이 모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속 가능한 로컬 문화를 만들어가는 브랜드입니다.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축제와 행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용기 렌탈을 넘어 반납 부스 운영과 환경 캠페인을 기획하며, 축제 방문객들이 자원 순환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이벤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ZERO MAKERS



간단한 소개와 함께 현재 어떤 방식으로

자원순환 활동을 운영 · 실천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로메이커스는 축제·전시·컨벤션 등 행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행사장에서 사용된 다회용기를 현장에서 회수하고 전문 세척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회용 컵과 식기의 사용을 줄이고, 행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량과 탄소 저감 효과를 데이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대여하는 것을 넘어, 행사 현장 자체가 하나의 자원순환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며 느끼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자원순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와 인식의 문제입니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려면 회수 공간, 세척 시설, 운영 인력 등 여러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하지만 많은 행사 현장은 아직 일회용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간 확보나 운영 비용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다회용기에 대해 위생이나 불편함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노력뿐 아니라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적 제도와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자원순환은 거창한 행동보다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물건을 계속 소비하기보다 이미 사용하던 물건을 다시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또한 정확한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물건을 쉽게 버리기보다 수리하거나 다시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자원순환의 방법입니다. 결국 자원순환은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비' 대신 '가능하면 다시 쓰는 선택'을 하는 생활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런 시도를 지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자원순환 문화는 훨씬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시면서 특히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행사 현장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운영하니까 쓰레기가 훨씬 덜 나와서 좋네요" 같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축제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께 "이거는 버리면 안 돼, 여기에 반납해야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다회용기 사용이 단순한 환경 실천을 넘어, 아이들에게도 자원순환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처음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 최근 시민들이 다회용기를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실감하시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다회용기 사용이 특별한 결심이 아닌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잡았다고 느끼신 순간이 있었나요??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특별한 선택처럼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련 제도 변화와 문화적인 흐름,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회용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나 행사에서 다회용기가 제공되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맞는 방식인 것 같다"거나 "이제는 이런 방식이 당연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도 많아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일상화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회용기 사용이 더 이상 낯선 시도가 아니라 행사 운영의 하나의 표준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현장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게 만드는 운영자님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또 이런 변화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길 바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작은 변화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때 큰 동기를 얻습니다. 한 번의 행사에서 수천 개, 많게는 수만 개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고, 그 경험이 시민들에게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작은 시도에 불과했지만, 현장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때마다 일이 충분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자원순환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일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와 시스템이 함께 변화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다회용기 사용이 특별한 친환 활동이 아니라 누구나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변화를 만드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일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행동하는 사람들 | 현장에서 듣는 자원순환 이야기

에디터 현규

제로웨이스트샵 그리니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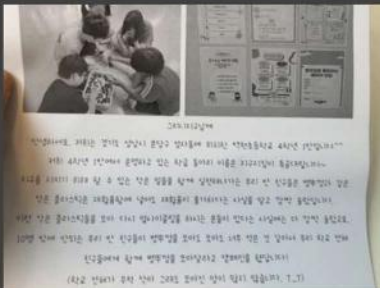
"일상에 초록빛 온기를 더하는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
그리니지구는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이 즐거운 일상이 되도록 돕는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입니다.

친환경 주방·생활용품들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며 자원 순환의 가치를 알립니다.
특히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과 친환경 공예 수업을 통해
쉽게 에코 라이프를 시작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합니다.



MIRI FLOWER
리필스테이션 & 환경샵

www.greenearth.kr



간단한 소개와 함께 현재 어떤 방식으로

자원순환 활동을 운영 · 실천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벚꽃이 아름다운 도시 진해에서 지구편의점 그리니지구를 운영하고 있는 정미소입니다. 일반적인 편의점과는 달리 지구를 편하게 하는 지구편의점으로 지역민들의 애정을 많이 받는 공간으로 녹색매장에 지정받기도 했어요. 5년째 운영하면서 다양한 자원들을 수거하여 순환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종이팩, 페트병뚜껑, 브리타필터, 전선, 예코백, 유리병 같은 것이예요. 한 번 쓰고 버려지기에는 너무 귀한 자원들이라 버리지 말고 모아달라고 안내 드리고 있어요. 종이팩 모아오시면 재생휴지로 바꿔드려며 보상을 드리고요. '두그란'이라는 환경보호실천 동아리활동을 통해 이러한 자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순환되고 재활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청소년과 성인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며 느끼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제로웨이스트샵은 자원을 수거하고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정거장 역할인데요, 자원을 필요로 하는 곳은 대부분 재활용하거나 업사이클링하여 새로운 쓰임을 만들어내는 곳이었어요. 5년 전과 같이 운영을 잘 이어나가는 곳도 있지만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된 곳도 많아요. 여전히 주민들은 열심히 자원을 모아주고 계신데 마땅히 갈 곳을 잃은 자원들이 생겨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깨끗하게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문화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시선이 있고 자원을 활용하여 ESG경영을 앞장서서 행하며 기후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하다보니 인간과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자원순환이라고 하면 재활용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듯 해요. 반면에 제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자원순환은 재사용입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분리배출을 잘 하는 방법보다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죠. 마트에서 장 볼 때 채소나 과일을 담기 위해 무의식중에 뜯어서 사용하는 비닐은 줄이고 집에 쌓아둔 비닐을 재사용하고 파우치를 챙겨와 담는 것, 카페에 갈 때 텀블러를 챙기는 것, 여행을 갈 때 칫솔과 세정용품 미리 챙기는 것 등 조금만 의식을 바꾸면 누구나 자원순환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방법이 어렵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후위기의 문제가 내 가족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면 지속가능한 실천을 쉽고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특히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어느 날 택배가 도착했어요. 택배박스에는 학생들의 사진이 담긴 편지와 페트병 뚜껑이 가득했답니다. 페트병 뚜껑이 크기가 작아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해도 재활용되기 어렵고 따로 모으면 자원이 되어 다양한 물건으로 재탄생된다는 것을 알고 4학년 학생들이 페트병 뚜껑을 모으는 캠페인을 했다고 해요. 학생들의 마음과 노력이 너무 예뻐서 답장과 함께 페트병 뚜껑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키링을 선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수업을 통해 만난 제자들이 자원을 모아주고 가족을 충동원해서 방문하기도 합니다. 나비효과를 일으키는 환경교육의 힘이 느껴질 때마다 뿌듯함을 느껴요.

어떤 계기로 제로웨이스트샵 운영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환경 관련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환경교육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민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러 가기도 하지만 만나러 오는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던 다양한 사람과 만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지원받게 되면서 진짜 최초의 제로웨이스트샵 그리니지구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환경이라는 키워드의 공통 관심사를 가진 지역민의 거점이 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며 혼자서는 용기가 없거나 업무가 나지 않아서 못했던 일들을 기획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캠페인을 함께하고 플로깅, 비치코밍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원동력이 되어주었어요.

제로웨이스트샵 운영 과정에서 시민들의 인식이나 행동이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신 순간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손님 중에 60대 여성분들이 꽤 계세요. 워낙 많은 사회변화와 환경변화를 겪으신 세대라 매장을 둘러보시면서 "일회용품 사용 문제가 너무 심각해~" "이런 곳이 꼭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연을 보존하고자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계기가 부족하셨다며, 미래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환경을 위한 공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리필스테이션에 있는 세제를 리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도 해야지" 하면서 기후문제를 공감하고 노력해주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함께 하자

3월 10일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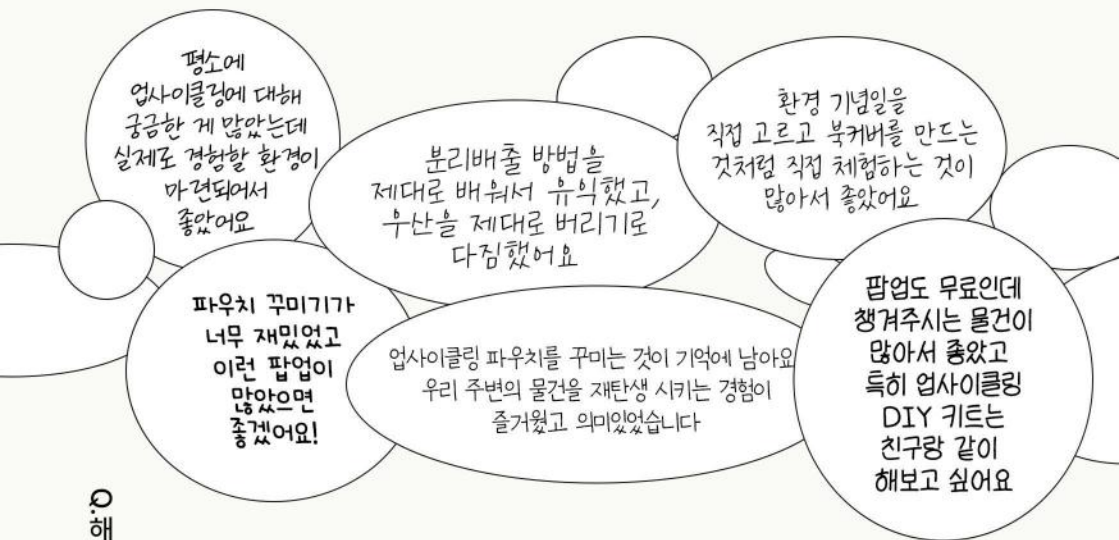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참여할 때 비로소 눈에 띄는 변화가 만들어진다.
순환대로는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다.
팝업에서 만난 참여자들의 목소리와 그 현장에서 만들어진 변화를 이 장에 담았다.
이와 더불어 일상 속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과 방법들을 소개한다.
자원순환은 생각보다 가깝더라.

경험은 변화가 된다 | 팝업에서 만난 목소리들

에디터 병준

앞선 챕터에서는 자원순환을 이루는 다양한 방식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한 번 더 펼쳐지는 것들> 업사이클링 팝업에서 직접 자원순환을 경험하며 남긴 목소리를 전해보고자 한다.

경험은 때로 설명보다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한다. 무언가를 보고, 만들고, 직접 참여했던 순간들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이번 팝업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 경험을 어떤 형태로 남겨두었을까.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순간들을 기록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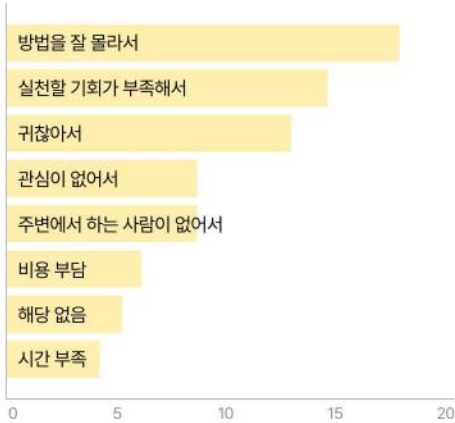
Q. 해시태그로 표현해 보세요!

- #실천
- #환경
- #아름다움
- #자원순환
- #뜻깊은 경험
- #재방문
- #업사이클링
- #수운
- #폐우산
- #재미
- #관심
- #아는 만큼 보인다
- #경험
- #한 번 더
- #의미
- #매력
- #버려지는 것들의 소중함
- #모두

자원순환을 낫설어 하는 사람들을 직접 현장에 불러모으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팝업은 단 하루. 이곳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자원순환의 이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다음에는 자원순환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기 위해 팝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n=39

01 문제 | 자원순환은 왜 실천되기 어려울까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방법을 잘 몰라서'였다. 총 19명이 선택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복수 선택) 그 다음으로는 실천할 기회가 부족해서(15명), 귀찮아서(12명)라는 이유가 뒤를 이었다. 반면 비용 부담(6명)이나 시간 부족(4명)을 이유로 꼽은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자원순환이 일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실제로 실천해볼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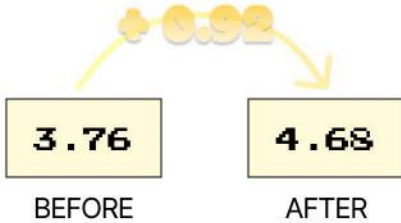
02 경험 | 팝업에서의 경험은 어땠을까

팝업 경험에 대해서 모든 항목이 4.6점 이상으로 참여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 평소에는 자원순환을 실천할 기회가 적었지만, 환경만 마련된다면 자원순환의 의미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경험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다.

이번 팝업은 참여자들에게 짧은 체험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일상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마중물이었기를 바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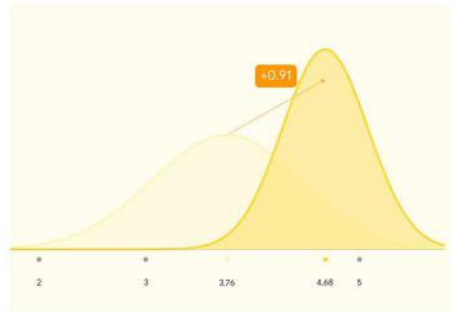
03 변화 | 경험 이후 달라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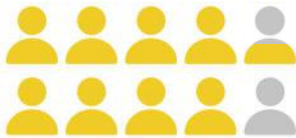
'나는 환경 문제가 나의 일상과 크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다' 와 같은 자원 순환 인식 수준을 조사했다. 사람들의 인식 점수는 평균 약 3.76점이었으며, 이후 팝업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0.92점 상승한 약 4.68점의 결과가 나타났다. 여러 번의 설명보다 체험을 통해 얻는 경험이 인식 상승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04 검증 | 통계적으로도 확인된 인식 변화

평균만 비교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팝업 참여 전후 자원순환 인식 변화를 통계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유의미한 차이로 확인되었다. 효과 크기 역시 큰 수준으로 나타나, 팝업 경험이 참여자들의 자원순환 인식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05 개인 변화 | 참여자 82%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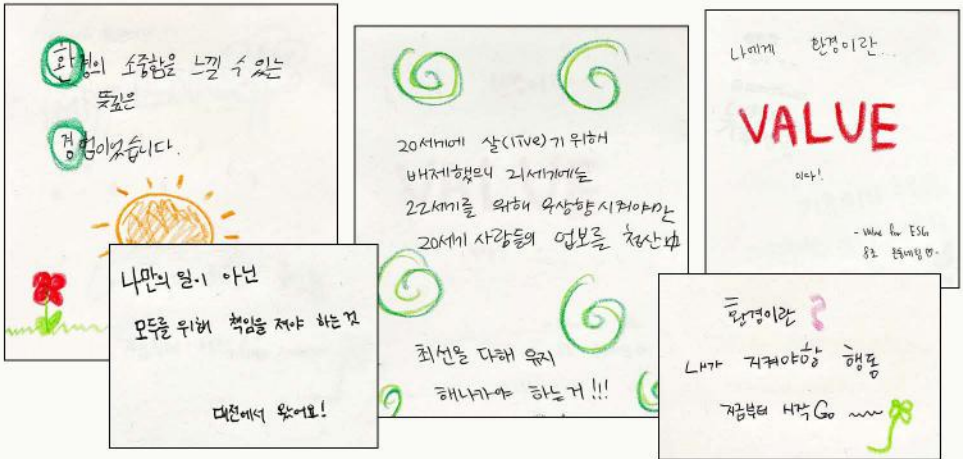
인식 상승 - 82.4%
 변화 없음 - 17.6%
 인식 감소 - 0%

참여자 평균이 아닌 개인의 변화 역시 확인했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자원 순환에 대한 인식 상승을 경험하였고, 인식이 감소한 참여자는 없었다. 팝업의 규모를 키워서 진행된다면 더 많은 참여자의 인식 상승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06 행동 | 경험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팝업 안에서의 경험이 밖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참여자들에게 팝업을 다시 참여할 것인지, 일상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할 것인지, 자원순환과 관련된 공간에 방문할 것인지, 이러한 경험을 주변에 공유할 것인지 물었다. 참여자들 모두 행동 의지가 4.8점 이상으로 팝업 안에서의 경험을 밖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자원순환 실천의 문제부터 팝업의 경험을 통한 인식 변화까지. <한 번 더 펼쳐지는 것들>의 참여자는 모두 다른 목소리로 자원순환을 이야기했다.

이번 웹진에서 그 목소리들이 모두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쁘다. 자원순환을 알리며 행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 순환대로의 목적지를 시민들도 알아본 것일까. 이번 팝업의 긍정적인 기억이 확산되어 자원순환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는 환경까지 순환대로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작은 경험이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주위를 둘러보면 | 제로웨이스트 · 새활용 공간 지도

에디터 예영

자원순환은 멀리 있지 않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미 순환의 사이클은 열심히 굴러간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졌던 제로웨이스트 상점도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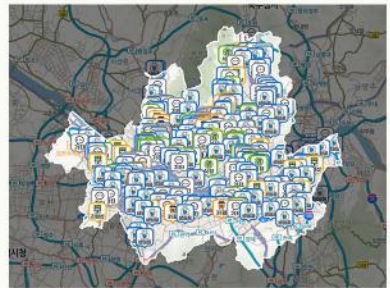
제로웨이스트 상점은 말 그대로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소비를 지향하는 가게다. 일회용 포장재를 줄인 제품을 판매하거나, 다회용기에 세제, 샴푸, 곡물, 조미료 등을 담아 갈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기도 한다. 대나무 칫솔이나 천연 수세미처럼 일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들도 만날 수 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경험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작은 용기 하나만 챙겨서 생필품을 마련하러 가자. 일상 속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스마트서울맵

[착한소비] 제로웨이스트 상점

서울시는 제로웨이스트 상점과 관련 공간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 내 주변의 제로웨이스트 상점 찾기

옆에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내 주변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원하는 상점을 클릭하면 위치와 연락처 등의 기본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방문 전 참고하기 좋다.

새활용 공간을 찾아서 ...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방법, 업사이클링.

이제는 업사이클링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새활용 공간에서는 업사이클링 체험 프로그램과 환경 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이 자원순환을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 버려지는 자원에 새로운 쓰임을 부여하며, 새활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자원순환을 일상 속에서 몸소 실천해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수도권을 넘어 순천, 양양 등 전국 각지에서도 새활용 공간이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

이제 자원순환은 더 이상 일부 사람들의 실천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아래에서는 서울 곳곳에 위치한 새활용 공간들을 소개한다.

성북리엔업사이클플라자

안 입는 옷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 냉장고, 세탁기 등의 생활 가전수리 실습 프로그램

-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 해설 투어
- 태양광 시설 견학

강동리엔업사이클플라자

분리배출 교육

- 병뚜껑 업사이클링 체험
- 초등학생을 위한 넷제로Net Zero 투어 (신재생에너지 시설 견학)

서울새활용플라자

도슨트와 함께하는 새활용투어

- 새활용 DIY 키트 체험 교육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난감 자원순환 체험 프로그램

더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해 | 참고 자료 & 추천 콘텐츠

에디터 경진

자원순환은 생각보다 쉽게, 가까이서 시작할 수 있다.
일상 속에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다른 선택을 해보는 작은 시도로도 충분하다.
그런 시도들이 모이면 우리의 생활 방식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원순환은
감축(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업사이클링(Upcycle)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일상 속에서
이런 실천을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당신의 동반자가 되어 줄
콘텐츠들을 소개한다.
자원순환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튜브 채널, 도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브랜드를
함께 만나보자.

YOUTUBE CHANNEL



일상 속에서 직접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튜브 채널.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시도해볼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법을
소개한다.



★ 마침내!! 초밥 포장성공!! 가을은 식욕 의 계절~ 마라꼬치·두바이초코딸기...



버리기에 너무 멀쩡한 옷들! 그럼 우리 바꿔 입자!! | 21% 파티

옷 교환 파티에 참여하거나,
일회용품 없이 배달 음식을
즐기고, 등산하며 플로깅을
하는 등 일상 속 작은 선택
을 통해 환경을 생각하는
여러 방식들을 보여준다.

RECOMMENDED BOOKS



《세상에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어》_허유정
#제로웨이스트 #노하우



《EBS 지식채널e x 기후시민》
#기후위기 #기후행동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호프 자런
#지구의 변화 #데이터



《아무튼, 비건》_김한민
#비건 #에세이



《지구를 살리는 옷장》
박진영, 신하나
#지속가능한 패션



SUSTAINABLE BRAND



지구스토리

대나무, 코코넛 등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선보이는 제로웨이스트 브랜드. 업사이클링과 제로웨이스트를 경험할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도 운영하고 있다.



리뉴어스

버려지는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브랜드다. 버려진 가죽 스트랩을 모아 재생 가죽으로 만들고, 커피 찌꺼기와 사탕수수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친환경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디자인 제품 전문 브랜드다. 자연을 생각하는 문구류를 시작으로, 다양하게 제품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구나무



마치며

에디터 서연

이렇게 웹진 『환(還)-하다』는 막을 내린다.

업사이클링에 대한 캠페인을 하겠다고 처음 결심했던
몇 달 전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숨가쁜 프로젝트를 해내면서 오히려 환해진 것은 나의 일상일지도 모르겠다.

한 명도 빠짐 없이 최선을 다해 준 모든 팀원들과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지구를 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 주신
밸유 for ESG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우리가 심은 자원순환의 씨앗들이, 지구를 식혀 주는 거대한 나무가 되길 바라며,
이 프로젝트가 끝나도 모두의 일상 속에 자원순환이 계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이 없는 순환대로처럼.

자료 출처

[기사 및 참고자료]

- [1] 서다운, "고무장갑·치킨뼈 종량제 버렸다가 벌금 10만원?...구마다 다른 분리배출 '혼란'", <뉴스펍권>, 2025.09.15,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93>, 접속일자 : 2026.03.09
- [2] 박소혜, "용기를 내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작은 실천으로 환경 지키는 '용기내 챌린지'", <CIVIC news>, 2023.12.14, <https://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11>, 접속일자 : 2026.03.09
- [3] 한국폐기물협회, "순환자원 품질인증 및 사용제품 표시 제도", http://kwaste.or.kr/bbs/board.php?bo_table=board16&wr_id=1354, 참고일자 : 2026.03.09
- [4] 최윤선, "'우산 칼 고쳐 쓰세요'...서초구,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 <연합뉴스>, 2024.06.1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0037000004>, 접속일자 : 2026.03.09
- [8] 한기섭, "화마에서 소방관 지키던 방화복, 환경도 지킨다", <뉴스홈>, 2025.05.16, <https://www.news-ho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97>, 접속일자 : 2026.03.09
- [14] 스마트서울맵, "우리동네 제로웨이스트 상점", <https://map.seoul.go.kr/smgis2/short/6NCzo?lang=ko>, 참고일자 : 2026.03.09

[이미지 출처]

- [5] 오버랩, OVPR-104 수납 월렛 그레이, 공식 홈페이지(<https://www.overlab.kr/>)
- [6] 알맹상점, 공식 홈페이지(<https://almang.net/>)
- [7] 119REO, 공식 홈페이지(<https://www.119reo.com/>)
- [9] 그린업, 공식 홈페이지(<https://greenecon.co.kr/>)
- [10] 다시입다연구소, 공식 홈페이지(<https://wearagain.org/>)
- [11] 열린옷장, 공식 홈페이지(<https://theopencloset.net/>)
- [12] 제로메이커스, 공식 홈페이지(<https://zeromakers.kr/>)
- [13] 그리니지구, 공식 홈페이지(<https://greenyearth.cafe24.com/>)
- [15] 쓰레기왕국, YouTube 채널, https://www.youtube.com/@trash_kingdom
- [16] "쌓여있는 책 이미지" Designed by Freepik
- [17] 지구스토리, 공식 홈페이지(<https://zigustory.com/>)
- [18] 리뉴어스, 공식 홈페이지(<https://www.renewus.co.kr/index.do>)
- [19] 지구나무, 공식 홈페이지(<https://jigoonamoo.com/>)

모두를 위한 자원순환 웹진

환(環) - 하다



@VALUE_UP_BRELLA



2026032011SUN

환경을 환하게, 우리의 작은 순환

펴낸이 강경진 김도희 김서연 박병준 서연우 이수연 이현규 장예영

Designed by 김서연